

금융

Sector Issue Brief

2026. 08. 28

Check Point

- 한은 7~8 월 연속 금리인상 단행
- 은행/보험 수익성과 건전성에 긍정적
- 증권업종에는 비우호적 유동성 환경

연속적인 금리인상과 금융주

| Analyst 전배승 | bsjun@ls-sec.co.kr

7월에 이어 8월에도 금리인상

- ▶ 전일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현 2.75%에서 3.00%로 인상. 반도체경기 호황과 내수경기의 파급효과를 감안해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을 각각 3.3%와 2.9%로 크게 상향하면서 7월에 이어 연속적인 금리인상을 단행.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7%로 기존 전망을 유지
- ▶ 한편 6개월 후 금리전망이 표시된 점도표의 중앙값은 3.25%를 유지하면서 시장금리의 추가상승은 제한되는 모습. 최종적인 기준금리 수준은 3.25%~3.50%로 예상됨에 따라 현 시점은 금리인상 사이클의 중반부를 지나고 있는 상태로 볼 수 있음. 시장금리와 금융주 주가에는 향후 한두차례 금리인상 가능성이 상당부분 반영된 상태로 평가

금융업종별 영향과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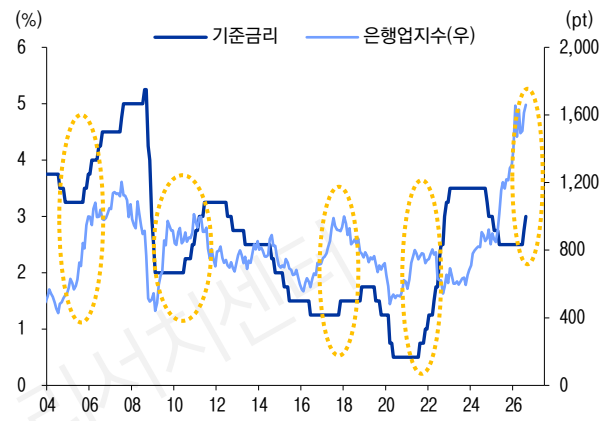
- ▶ 은행: 25bp 금리인상에 따른 주요은행의 최초 1년간 이론적인 이자이익 증가 폭은 평균 1,000억원 수준이며, NIM 영향은 +2.5bp 내외. 0~6개월 금리감응갭이 큰 폭의 플러스를 기록하고 있어 7~8월 연속적 금리인상으로 27년 상반기까지 NIM 상승 기조는 유지되고, 27년 초 금리인상 사이클 종료를 가정하면 27년 하반기에는 NIM의 하락반전이 예상됨. 26년 3분기 현 시점의 경우 조달금리 상승으로 NIM 상승 폭은 주춤한 구간이며, 7~8월 금리인상 효과는 9월 이후 본격화 예상. 6~7월 중 신규 및 잔액 예대금리차는 금리인상에 대비한 은행권의 선제적 자금조달로 수신금리 상승 폭이 크게 나타나며 축소양상을 보이고 있음. 금리 인상에 따른 대손부담 상승압력이 병행되고는 있으나 경제성장률 전망이 상향되고 있어 부정적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 26~27년 명목GDP 성장률이 5~6%에 달해 기업대출을 중심으로 대출성장률도 높게 유지될 것. 하반기 증권사의 이익기여도 축소로 은행 지주 수수료이익 둔화가 예상되나 긍정적 이자이익 흐름이 이어지며 실적의 버팀목으로 작용할 것
- ▶ 보험: 금리인상은 신규 투자수익률 제고와 CSM 배수 확보, 킥스비율 상승 측면에서 수익성과 건전성에 긍정적 요인. 금리인상 초기에는 채권평가손실이 발생하나 연속적 금리인상이 진행될 경우 보유이원이 상승. 과거 대비 보험사의 부채 듀레이션갭이 축소 되고 일부 회사는 오버매칭을 보이고 있으나 부채할인을 강화와 CSM 확보를 위한 보험부채 만기확대 추세를 감안하면 금리인상 환경은 자본안정성에 긍정적 영향. 50~100bp 금리인상시 대형생보사 기준 킥스비율은 10%p 내외 상승하는 것으로 파악됨. 실제로 상반기 중 대부분 보험사들의 킥스비율이 상승했으며 투자손익 흐름 또한 견조. 2분기 계리가정 변경이 하반기 CSM 배수 하락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나 고수익성 상품위주의 매출전략과 금리상승이 병행되면서 신계약 CSM 축소 폭은 크지 않을 전망. 하반기 보험손익 개선흐름이 이어지고 주주환원 확대 기대감이 유지되는 가운데 금리인상 환경은 긍정적 투자여건을 제공할 것
- ▶ 증권: 물가상승을 동반한 금리인상에 따른 실질유동성 둔화는 증권업황에 비우호적 외부환경으로 작용. 경제성장률 전망이 상향되고 반도체 경기 호조세가 이어질 경우 증시여건 개선이 예상되나 이미 거래대금이 수준이 급감한 상태. 하반기 브로커리지/자산관리 수수료이익 감소를 기타 운용이익과 IB수익이 만회할 수 있을지가 관건

그림1 기준금리와 시장금리 추이



자료: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2 기준금리와 은행업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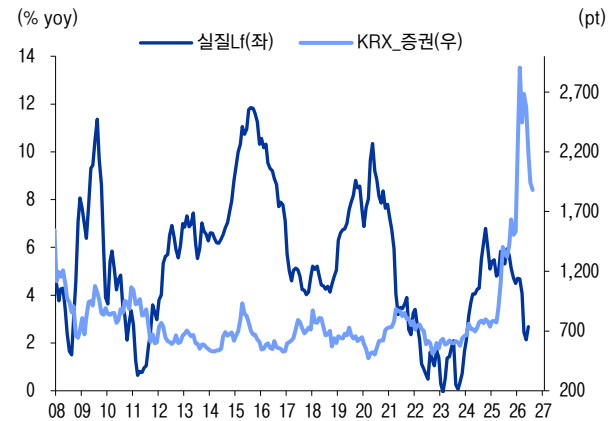
자료: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3 기준금리와 보험업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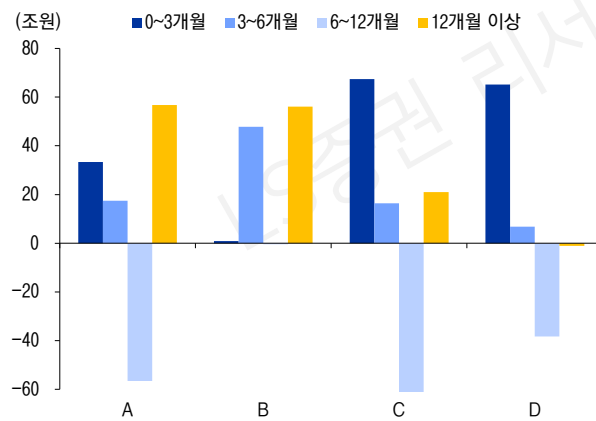
자료: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4 실질유동성과 증권업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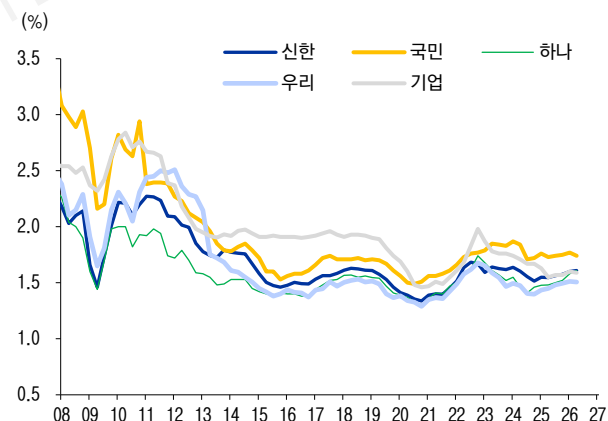
자료: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5 은행별 원화금리감응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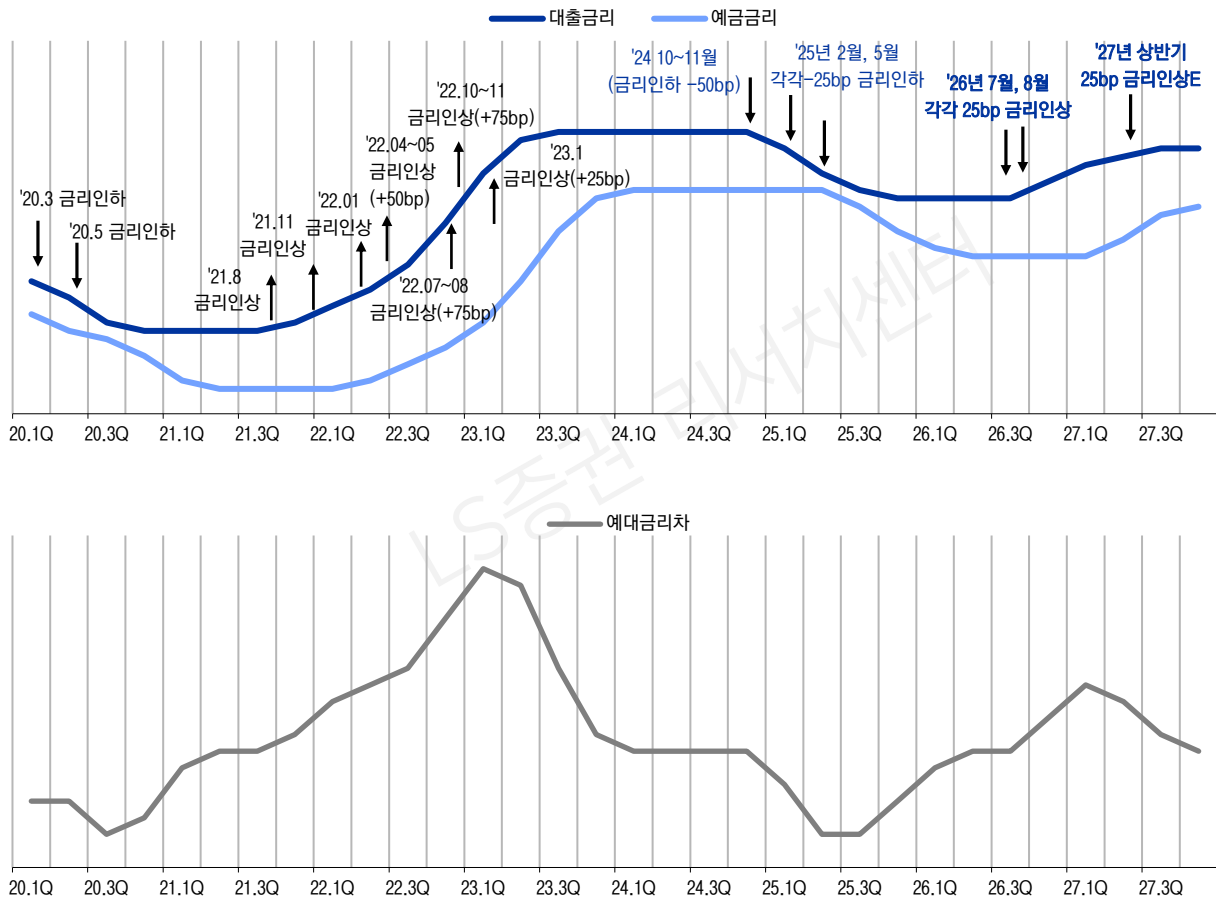
자료: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6 은행별 NIM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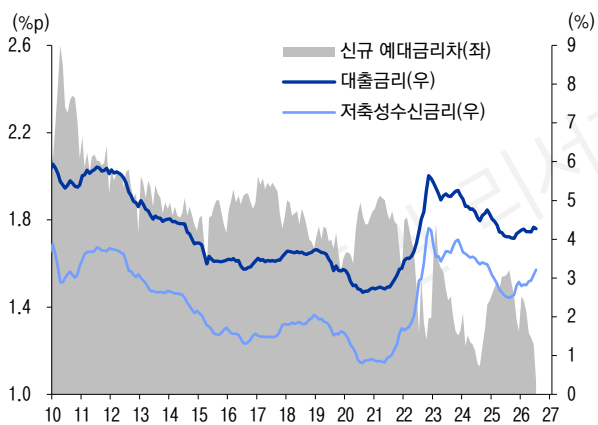
자료: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7 기준금리 변화에 따른 은행 예대금리차 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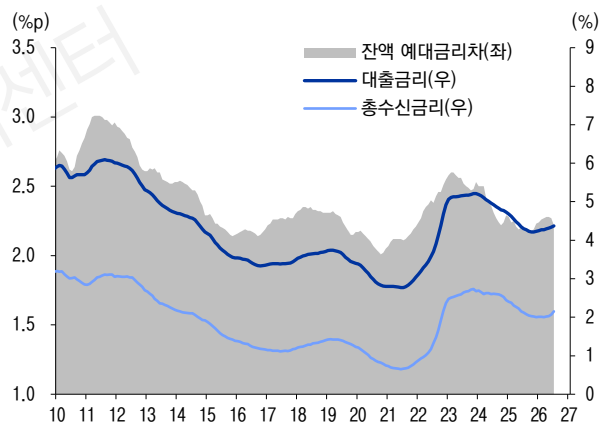
자료: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9 신규취급액기준 예대금리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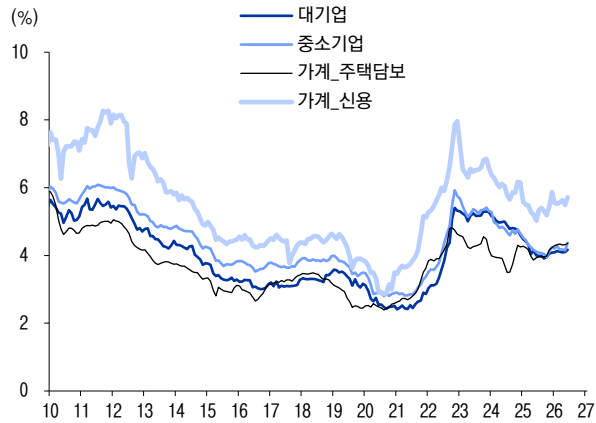
자료: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0 잔액기준 예대금리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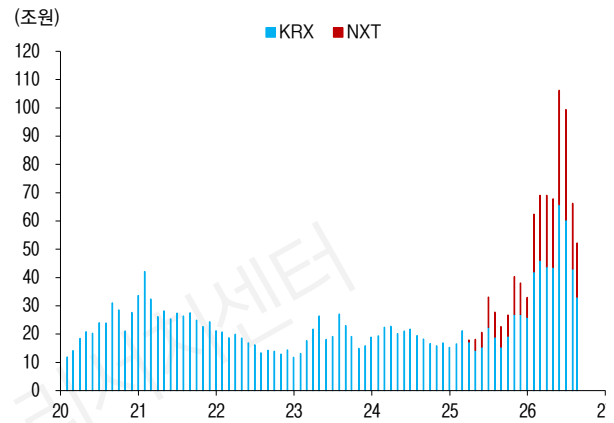
자료: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1 은행권 대출금리(신규취급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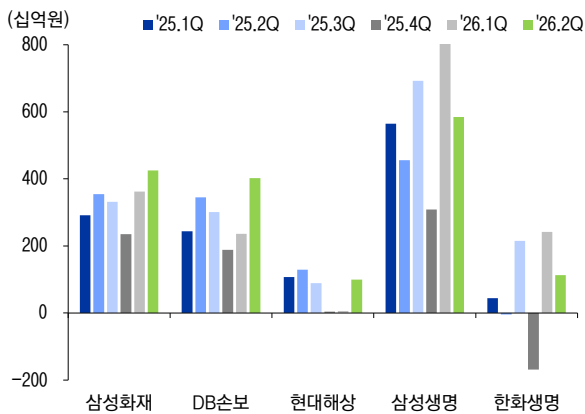
자료: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2 증시 거래대금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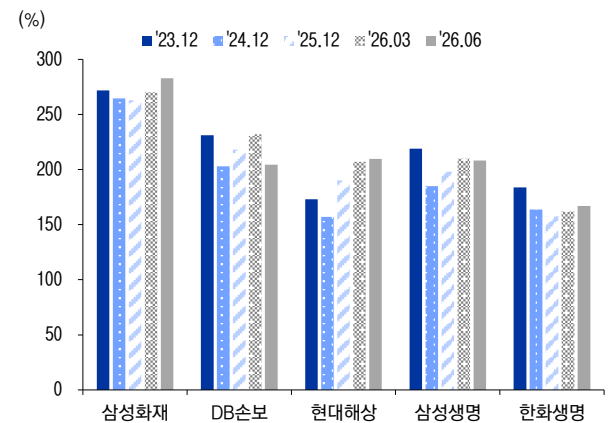
자료: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3 보험사별 투자손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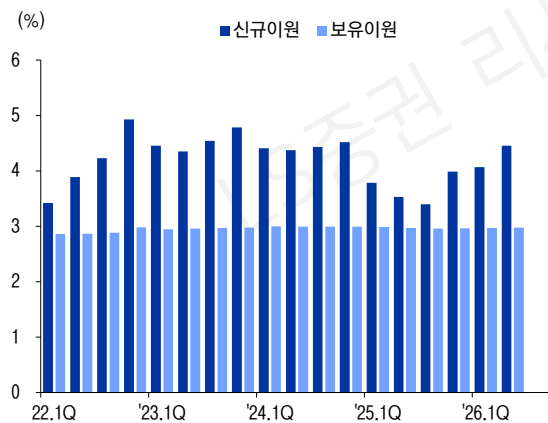
자료: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4 보험사별 키스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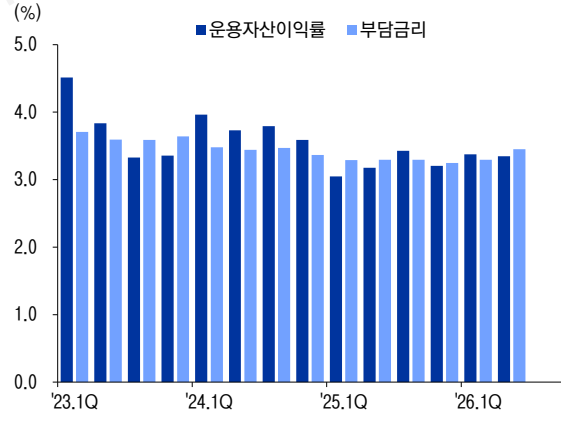
자료: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5 삼성생명 신규이원과 보유이원



자료: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6 한화생명 운용자산이익률과 부담금리



자료: LS증권 리서치센터

Compliance Notice

본 자료에 기재된 내용들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작성자: 전배승).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본부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유가증권 투자 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동의 없이 복제, 배포, 전송, 변형될 수 없습니다.

_ 동 자료는 제공시점 현재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당사에서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 및 그 배우자 등 관련자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에 해당하는 회사는 당사와 계열회사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투자등급 및 적용 기준

구분	투자등급 guide line (투자기간 6~12 개월)	투자등급	적용기준 (향후 12 개월)	투자의견 비율	비고
Sector (업종)	시가총액 대비 업종 비중 기준 투자등급 3 단계	Overweight (비중확대) Neutral (중립) Underweight (비중축소)			
Company (기업)	절대수익률 기준 투자등급 3 단계	Buy (매수) Hold (보유) Sell (매도) 합계	+15% 이상 기대 -15% ~ +15% -15% 이하 기대	90.3% 9.7%	2018년 10월 25일부터 당사 투자등급 적용기준이 기준 $\pm 15\%$ 로 변경
				100.0%	투자의견 비율은 2025. 07. 01 ~ 2026. 06. 30 당사 리서치센터의 의견공표 종목들의 맨마지막 공표의견을 기준으로 한 투자등급별 비중임 (최근 1년간 누적 기준. 분기별 갱신)